

■ S-147 ■

간의 원발성 신경내분비암종 1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방사선종양학과교실²

*노경우¹, 손병관¹, 공수정¹, 심수정², 정미연¹, 류상열¹, 안상봉¹, 김성환¹, 조윤주¹, 박영숙¹

서론: 악성 신경내분비 종양은 위 장관과 췌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부신, 갑상선,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등 신체 여러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 신경내분비암종은 분화가 나쁘고, 조직학적으로 악성의 특징을 보이며 주변 장기 침윤과 원발 부위 전이를 보인다. 간의 원발성 신경내분비암종은 악성 간 종양의 1~5%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간세포암종과는 달리 간경변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간에서 발생한 원발 신경내분비암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65세 남자가 우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7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경구혈당강하제(diamicron® 80 mg)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우상복부의 압통이 관찰되었으며 간이 2횡지 촉진되었다. 검사실 소견에서 AST/ALT 120/48 IU/L, ALP/r-GTP 339/319 IU/L 이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중심부 괴사가 동반된 16 cm 크기의 우측 간내 종괴와 주변 결절이 관찰되었다. PET/CT에서 간내 종괴와 문맥 대정맥 림프절의 FDP 섭취소견이 보였다.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간생검 결과 AFP(-), CD56(+++), Synaptophysin (+++), CK(+)의 소견을 보이는 신경내분비 종양이 진단되었다. 지속적인 우상복부 통증으로 4400 cGy의 방사선 치료와 함께 Ifosfamide와 carboplatin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치료 이후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종괴 크기 감소가 관찰되었고 상복부 통증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양하지 부종 및 폐부종, 우측늑막액이 관찰되었다. 이 후 환자는 더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은 거부하여 보전적 치료 중 사망하였다.

■ S-148 ■

Spontaneous fistulization of ruptured liver abscess into the stomach

광주보훈병원 소화기내과

*박상현, 이봉규, 이남훈, 서영호

서론: 간농양의 예후는 합병증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농양의 합병증은 패혈증과 같은 전신 합병증과 간농양 자체의 국소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소 합병증으로는 흉막 삼출, 농흉, 폐농양, 간-기관지 누공형성 등 폐 관련 합병증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간-위 누공형성은 매우 드물고 국내에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증례:** 82세 남자환자로 내원 10일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과 전신쇠약, 내원 2일 전부터 악화되는 통증과 오한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였다. 체온은 37.9℃, 맥박은 분당 85회, 혈압은 110/80 mmHg, 호흡수는 분당 20회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복부진찰상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반발통은 없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23000/mm³, 혈색소 12.0 g/dL, SGOT 68 IU/L, SGPT 40 IU/L, 총 빌리루빈 1.2 mg/dL, ALP 365 IU/L, gamma-GTP 136 IU/L, CRP 140 mg/dL이었다. 입원당일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간좌엽에 약 10 cm의 변연부 조영증강을 동반한 저음영의 종괴 관찰되었으며 간좌엽 하방의 복강내에 약 8 cm의 저음영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는 간농양과 이의 복강내로의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경피적 배액술을 시도하기위해 시행한 복부 초음파상 종괴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차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현저히 크기가 감소한 간내종괴 및 복강내 종괴를 확인할수 있었고 복강내 종괴와 위사이에 누공이 관찰되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상 위전정부 전벽에 궤양이 관찰되었고 궤양중심부에 농의 배출을 보이는 누공이 의심되어 캐놀라와 유도선을 이용하여 시행한 방사선 조영술상 위와 복강내 종괴사이에 형성된 누공을 확인할수 있었다. 누공을 통해 충분한 배액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추가적인 배농술은 시행하지 않고 항생제만 투여하였으며 내원 4주째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간과 복강내 종괴의 현저한 크기감소를 확인할수 있었고 이후 경구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외래에서 추적관찰하였으며 8주째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간과 복강내 종괴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찰:** 복강 내로 파열된 간농양이 위와 누공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배농이 이루어진 예는 국내외에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 추가적인 배농술 없이 항생제 투여만으로 성공적으로 치유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